



한겨레21

✓ 구독중

한겨레21

✓ PICK ⓘ

“민주노총 탈퇴 안하면 인센티브 없다” 국정원의 공작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20.05.15. 오후 3:15



1



2

요약봇^{Beta}

가가



[한겨레21] [표지이야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21곳, 청와대도 관심 가진 민주노총 탈퇴 총력전





5월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 사무실에서 2011년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

○ 국정원의 민노총 무력화 활동은 ① 유관기관 협조 및 勞使 관계자 직접 설득 ② 노조위원장 선거時 온건후보 당선 지원 후 민노총 탈퇴 설득 ③ 보수단체(민주노동 개혁연대) 활용 ④ 국민노총(제3노총) 설립 지원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요 활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관기관 협조 및 勞使 관계자 직접 설득

[영진약품] (2009.3월 탈퇴)

- 舊 OOOOO는 2009.2월초 勞使대표를 접촉, 同社에 부과된 탈세 추징금 (85억) 납부기한 연기를 조건(국세청 OO을 접촉, 추징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민노총 탈퇴를 설득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 (2009.4월 탈퇴)

- 同노조는 2009.3월 조합원 대상 민노총 탈퇴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의결 요건(2/3 찬성, 67%) 未충족(64% 찬성)으로 부결된 이후, 노동부에 상급단체 탈퇴요건을 질의하였으며

- 舊 OOOOO이 노동부에 상급단체 탈퇴요건 완화(2/3→과반수) 유권 해석을 내리도록 조정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同노조는 2009. 4월 2차 투표시 2/3이상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의결)

[그랜드코리아레저] (2010.4월 탈퇴)

- 舊 OOOOO 등은 勞使측을 접촉하여 민노총 탈퇴를 설득하면서 문화부에 '민노총 未탈퇴시 인센티브 철회' 등을 압박하도록 협조, 민노총 탈퇴를 유도하였습니다.

* 同社는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장을 운영, 문화부는 2010.1월부터 지급한 장려금(1인당 30만원, 月 4.5억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압박

국가정보원이 2009~2011년 민주노총 탈퇴에 관여한 노조(21곳)

2009년 탈퇴	KT, KT파워텔, KT네트웍스, K테크, KT하이텔, 굿모닝에프, NCC, 영진약품,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충북지역 상용직 노조, 폴리미래, 부산에인선, 환경부노조
2010년 탈퇴	한국행정연구원, 불보코리아, 그랜드코리아레저, 대림자동차공업, 발레오전장코리아, 상신브레이크
2011년 탈퇴	서울지하철노조

자료: 2018년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3169>

“그런 것도 좀 확실히 해가지고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노총도 우리가

제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더 강하게 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실제 국정원 수사참고자료에는 GKL 노조와 관련해 인센티브(성과급) 언급이 나온다. “(국정원) 구 국익정보국은 노사 측을 접촉해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주노총 미탈퇴시 인센티브 철회’ 등을 압박하도록 협조,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부는 2010년(2011년의 오기로 추정) 1월부터 지급한 장려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2009년 3월 탈퇴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산하 영진약품지회의 경우,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노사 대표를 접촉해 영진약품에 부과된 탈세 추정금 85억원 납부시한을 연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한 것으로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다.

정아무개 국정원 대전지부 정보처장이 고등학교 동문인 심종두 창조건설팅 대표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받았으며, 정 처장 외에도 2011년 국정원 직원이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돼 있다.

요약 : MB국정원이 민주노총 약화시키고 탈퇴 유도하기 위해 국정원 국익정보국이 인센티브로 회유 / 협박, 심지어 노조 해체를 건설팅해주는 창조건설팅이라는 업체에게도 자료를 전달받았다.